

“수행·포교로 존경받는 승가 돼 달라”

진제 종정예하, 신년하례서 ‘교시’

“사회 구석구석 스며들어 ‘갈등 봉합’
온기 불어넣어 세계평화 이끌자” 당부

조계종 진제 종정예하가 불기 2558년 갑오년 새해에는 수행과 포교로 존경받는 승가가 되어 지구촌의 행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진제 종정예하는 지난 7일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서 ‘무유지족(無慾知足)의 불가(佛家)’를 만들어 갈 것을 강조하며 이 같은 가르침을 내렸다.

종정예하는 “누적된 과거의 폐습, 시비와 갈등을 내려놓고 지계(持戒)로써 심신(心身)을 청정히 하고 수행과 기도과 포교로써 화합된 불가(佛家)와 존경받는 승가(僧家)가 되어 국가와 지구촌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정예하는 “출가수행자는 일체취일체시에 구도(求道)의 등불을 밝히고 재가자는 각자의 기량을 따라 지혜를 밝히고 복을 쌓아 세계의 정신문화와 인류의 복지를 선도하는 불제자가 돼 달라”고 덧붙였다.

종정예하는 또 신년교시를 통해 “갑오년 한 해엔 물과 같은 덕행으로 모으기보다는 베풀며, 사회 구석구석 스며들어 갈등을 봉합하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통일과 세계평화를 이끌어 가자”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갑오년 종단 하례를 맞아 종정예하의 가르침을 성심으로 받들고 원로의장 스님과 원로의원 스님을 편안케 모실 것”이라며 “청정한 수행과 자비의 실천으로 모두를 행복으로 이끄는 장엄한 빛으로 새해를 밝혀나가겠다”고 인사했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는 원로의장 밀운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중앙종회의장 함적스님, 호계원장 일면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지원스님과 각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김희욱 동국대 총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눴다.



지난 7일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서 진제 종정예하에게 새해 첫 인사를 마친 참석대중들이 원로의원 스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동국대 경주 선센터 건립 ‘동참’ 종정예하 금일봉

조계종 진제 종정예하가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센터 건립기금을 쾌척했다.

진제 종정예하는 지난 6일 경주캠퍼스를 방문해 학교 소개 및 선센터 건립 현황을 안내받은 후 금일봉을 전달했다. 종정예하는 “불교종립교인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불교 세

계화를 위해 추진하는 선센터 건립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기금 전달의 뜻을 밝혔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들이 역사문화도시 경주에서 템플스테이, 선, 명상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각원 인근에 선센터 건립을 추진하

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스님 및 불자 등의 동참으로 현재 20억여원이 모금됐다.

김진택 경주캠퍼스 대외협력처장은 “소중한 뜻을 내려 주셔서 감사하다”며 “선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2014 자비나눔으로 사회와 함께 나가자”

중앙총무기관·산하기관 시무식

조계종이 지난 6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불기 2558(2014)년 중앙총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을 열고 갑오년 새해 희망찬 각오를 다졌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총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무식에서 “종단이 가고자 하는 주요사업 3가지를 포함해 각 부처에서 제안한 주요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오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종단의 새해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종단은 지난 4년 동안 매월 한 번씩 복지시설 등 사회 어려운 곳을 찾아 자비 나눔을 이어갔다”면서 “그럼에도 (가톨릭)수녀의 수가 줄어들어 사회에 봉사과 나눔이 줄어들었다는 일간지 칼럼을 보고 망

은 고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종단의 주요과제는 물론 봉사, 나눔, 베풀이 우리의 기본적 인 업무임을 인식하고 사회와 함께 하며 건강하게 종단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호계원장 일면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지원스님도 배석해 신년덕담과 함께 종단중흥과 화합,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해 12월3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총무식에서 “올해 결산보고를 받다보니 중앙총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사자들의 사고소식이 있어서 안타까웠다”면서 종무원들의 복지기금으로 5000만원을 출연해 의미를 더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전통사찰 농지보전부담금’

2년간 감면…시행령 개정

올해부터 전통사찰을 보전 및 활용하기 위한 시설 가운데, 절대농지를 벗어난 지역에 설치된 부대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감면된다. 전통사찰이 농지전용을 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지난 12월30일 공포됐다. 감면 적용은 올해 1월1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통사찰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발전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령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문화유산 중 유형문화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밖에서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안(구 절대농지)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시행령의 적용기간은 정부의 방침을 적용해 올해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은 사찰보존 및 관리에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금미타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이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많은 전통사찰은 사찰보존과 관리에 과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해야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감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전통사찰의 농지전용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간 연장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향후 농지의 보존과 활용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천상인간에 대자유인이 되리라”

〈天上人間〉 〈大自由人〉

원로의원 6인 ‘대중사 법계’ 품서

이와 더불어 같은 장소에서 수행력과 덕망을 겸비한 원로 스님들에게 종단 최고 법계(法階)인 대중사(大宗師) 법계를 품서하는 의식이 봉행됐다. 진제 종정예하는 이 자리에서 세민, 정령, 대원, 지성, 성파, 성우스님 등 6명의 현직 원로의원 스님들에게 대중사 법계를 품서했다.

▶관련기사 3면

대중사 법계 품서식은 고불문 낭독을 시작으로 헌화, 법계증 및 가사 수여, 청법계, 종정예하 법어, 발원문, 불자 봉정, 사홍서원,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진제 종정예하는 대중사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에게 대중사 법계증과 대중사 휘장이 부착된 25조 가사를

내리며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자(佛子)’를 봉정하며 대중사 품수를 축하했다.

종정예하는 법어에서 “어차(於此)에 명득(明得)하야사 제불제조(諸佛諸祖)로 동참(同參)하여 천상인간(天上人間)에 대자유인(大自由人)이 되리라”면서 “모든 사부대중(四部大衆)은 대중사님(大宗師任)들을 여불(如佛)로 잘 받들지어다”라고 당부했다.

대중사 법계 품수자를 대표한 원로의원 세민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한 대중이 성불에 이를 때까지 물러남이 없이 용맹정진할 것을 다함께 발원한다”고 다짐했다. 동화사=허정철 기자

社告

‘군장병 위문품 보내기’

본지·군종교구·불교TV 공동캠페인

불교신문과 군종특별교구, 불교TV는 군포교 활성화를 목적으로 불교계 최초로 ‘군장병 위문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추운 겨울 전방과 조소경계로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하여 ‘하백(손난로)’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청년포교의 핵심인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991-000108(예금주:군종특별교구)

■ 문의 : 02-749-8646

불교신문사·군종특별교구·불교TV

지면안내

법문 때마다 1만명 경청

통도사 화엄산림 회향 4면

‘비울수록 가득하네’ 화제 8면

‘부처님 전탄’

아이들의 노래

미국을 울린다 13면



2014학년도

동학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1학년(사미니교), 2학년(사집과), 3학년(사교과), 4학년(대교과)

■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장양식)
② 주민등록증 및 승려증 사본
③ 은사스님 추천서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⑤ 사진(3×4) 2매
⑥ 건강진단서

■ 도착일시 2014년 1월 19일 (음 12월 19일) 오후 4시

■ 시험일시 2014년 1월 20일(음 12월 20일) 오전, 서류심사 및 면접

■ 준비물 만의가사, 장삼, 승려증

■ 특 전 입학금 면제, 전 학년 교재 제공

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신입생 모집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본 학림 소장양식)
② 승려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
③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④ 자기소개서
⑤ 수행이력서
⑥ 건강진단서
⑦ 사진(3×4) 2매

■ 전형일시 2014년 1월 20일(음 12월 20일) 오후 2시

■ 준비물 가사, 장삼, 승려증

■ 특 전 졸업 후 조교수 자격부여
매년 동문회 장학금 지급
매월 연구비 지원
종단 장학금 지원 자격

동학사승가대학장 행 오

동학사화엄승가대학원장 일 초